

세계 상위 2% 연구자 명단에

GIST 교수 30명 올라

상위 1% 이내 세계 최정상급 11명 포함

- 글로벌 학술정보기업 엘스비어(Elsevier) 발표 '세계 상위 2% 연구자' 명단에 전임 교원 191명(2024년 대학정보공시) 기준 15.7% 해당하는 30명 세계 상위 2%에
- 에너지융합대학원 임춘택 교수, 기계로봇공학부 안효성 교수, 생명과학부 김용철 교수 등 11명은 세계 상위 1% 이내... "마음껏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가꾸어 온 노력의 결과"



▲ GIST 캠퍼스 전경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논문 피인용도 기준 '세계 상위 2% 연구자'에 교수 30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. 이 중에는 세계 상위 1% 이내의 최정상급 연구자 11명이 포함됐다.

'세계 상위 2% 연구자'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학술정보분석기업 엘스비어(Elsevier)가 다양한 측면에서 양질의 연구자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전 세계 최상위 10만 명의 연구자 목록을 단순히 논문 인용 숫자를 집계하는 것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방식을 적용해 발표하고 있다.

GIST는 2024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전임교원 191명 대비 15.7%에 해당하는 교수 30명이 '세계 상위 2% 연구자'에 이름을 올렸다.

특히, 세계 상위 1% 이내에는 ▲에너지융합대학원 임춘택 ▲기계로봇공학부 안효성 ▲생명과학부 김용철 ▲AI대학원 안창욱 ▲환경·에너지공학부 이재영 ▲신소재공학부 김동유 ▲환경·에너지공학부 김인수 ▲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함병승 교수 등 11명이 포함됐다.

전기전자공학(Electrical & Electronic Engineering) 분야에서 세계 상위 0.38%에 오른 에너지융합대학원 임춘택 교수는 “GIST는 학제간 융합연구와 국제화 환경이 잘 갖추어진 연구중심대학”이라며 “연구 몰입에 대학의 자원과 역량이 최우선적으로 지원되는 학풍이 GIST의 강점”이라고 말했다.

지난 2019년 해당 분야의 학자로서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는 국제전기전자공학자협회(IEEE) 석학회원(Fellow)으로 선정된 바 있는 임 교수는 최근 IEEE로부터 국제학술지 <IEEE TPEL(Transactions on Power Electronics)> 공동편집장(Co-Editor-in-Chief)으로서 6년간 봉사한 노고에 대하여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.

연구자로서 이번 명단에서 환경과학(Environmental Sciences) 분야 세계 상위 2% 이내에 들기도 한 김상돈 교학부총장(환경·에너지공학부 교수)은 “지난 30년간 GIST가 집중해 온 최적의 연구환경 조성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본다”고 말하며, “앞으로의 30년을 대비하기 위해 우수한 연구역량을 갖춘 교원을 우대하고 세계적 석학을 초빙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승진·평가 등 교원 인사제도 전반에 걸친 대대적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

한편, 최근 발표된 ‘글로벌 최상위 2% 세계 과학자’는 22개의 분야, 174개의 세부 분야별로 최소 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전 세계 연구자를 대상으로 우수 학술논문 인용지수인 ‘스코퍼스(SCOPUS)’ 기반 1960년부터 2023년까지의 인용, h 인덱스(h-index), 저자 역할에 따른 인용 수 등 복합지표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이다.